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281-320
<https://doi.org/10.29212/mh.2018..109.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제장명*

1. 머리말
2. 임진왜란 이전 경상좌수영의 설치와 변천
3. 임진왜란 발발과 경상좌수군의 초기대응
4.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 시기 국난 극복의 주역은 일반적으로 조선 수군이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쟁 초기에는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라우도와 경상우도 수군이 좌우에서 협조하는 형태로 해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1593년 8월부터는

*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충청, 전라, 경상도의 삼도수군을 아우르는 삼도수군통제사체제가 성립되어 이른바 하삼도의 수군이 연합한 가운데 응집된 힘으로 일본수군의 서진을 막았다. 이러한 수군활동의 영향으로 일본군은 초기의 성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남하하여 강화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상도의 수군 중 경상좌도 수군은 다른 곳의 수군과 달리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동부 지역에 설치, 운영되어 온 경상좌수군은 임진왜란 개전 때부터 일본군의 점령지에 속함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좌수사 朴泓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도주함으로써 경상좌수군은 일찍부터 와해된 가운데 본연의 수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경상좌수군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소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일부이지만 경상좌수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인다. 특히 그동안 경상좌수군은 개전 초기부터 패배한 가운데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나름의 활동을 했다는 연구 성과가 있다.¹⁾ 아울러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지역에서의 전투 양상을 기술하면서 일정 부분 경상좌수군의 활동상을 밝힌 논문도 있다.²⁾ 그리고 정유재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한 연구 성과도 있다.³⁾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다.

1) 이민웅, 「임진왜란 초기 해전 연구 I」 『海洋研究論叢』(제39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2007, 5), 127~131쪽.

2) 李昊俊,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12

3)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수군 운용」 부산대 박사논문, 2014. 61~62쪽, 151~152쪽.

한편으로 조선후기 경상좌수영에 대한 연구 성과도 몇 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조선후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상좌수영의 현황과 변천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⁴⁾ 따라서 조선전기나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그만큼 경상좌수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임진왜란 시기 초기에 와해되어 유명무실해진 경상좌수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과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연구 관심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경상좌수군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상좌수군도 임진왜란 시기 존재하여 분명히 나름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경상좌수군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임진왜란 수군사를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2. 임진왜란 이전 경상좌수영의 설치와 변천

조선이 건국될 당시 수군지휘부의 편제는 각 도별로 수군도절제사체제에 의해 지휘되었는데 각 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고려시대 말에 사용되던 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수군도만호 제도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도의 경우 1408년(태종 8)에

4) 김성래, 「朝鮮後期 慶尙左水營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박정주, 「18세기 경상좌수영의 水操 및 전함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8; 이장우, 「조선후기 경상좌수영 營下坊里 연구」,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년;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운영」,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년.

경상수군도절제사를 좌우도로 분치하였다.⁵⁾ 1420년(세종 2)에는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도절제사를 수군도안무처치사 또는 수군처치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⁶⁾ 이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고려말의 수군제도를 수용한 가운데 육군과 수군의 통어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다가 수군이 분리되었다. 고려 말에 비로소 시작된 수군의 제도화는 조선 태종 대에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세종 대에 이르러 그 정비의 일단을 보았다.⁷⁾

수군의 조직이 체계화된 것은 세조대에 이르러서 육군의 진관편성 체제에 따라 수군 역시 진관조직을 갖추면서부터였다. 1466년(세조 12) 군제 개편 시 수군의 최고사령관을 수군도안무처치사에서 수군절도사로 개칭했으며⁸⁾ 통칭 수사라 불렀다. 이때 대대적인 관제 개편이 이뤄졌는데 병마 도절제사 도진무를 병마 우후로 하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 도진무를 수군 우후로 하고, 도만호를 수군 첨절제사로 하였다.⁹⁾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제주·교동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령의 겸임이 없었으며, 수사 밑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僉節制使·虞侯·萬戶 등의 직함을 두어 수군을 통솔 지휘하게 하였다.¹⁰⁾

당시 조선의 전국 8도에 병사와 수사직이 모두 설치되었지만, 경상·전라·충청·경기 4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는 모두 동일인이 두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황해·강원도는

5) 『太宗實錄』 권16, 8년 8월 20일(乙未) 조에 보면 “鷄林安東道都節制使 曹瑗으로 慶尙左道水軍都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尙州晉州道都節制使 尹子當으로 경상우도 수군 도절제사를 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6) 『世宗實錄』 권10, 2년 10월 27일(壬戌)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임진왜란 흥양해전사 연구』 고흥군, 2016, 22쪽(수군 제도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이 연구서의 21~22쪽 참조).

8) 『世祖實錄』 권38, 12년 1월 15일(戊午)

9) 위의 책, 같은 조.

10)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4, 74~112쪽.

병사·수사 각 1원이되 모두 관찰사 겸임, 영안도는 병·수사 각 3원이되 1원은 관찰사 겸임, 2원은 남·북도병마절도사가 각각 수사를 겸임하고, 평안도는 병·수사 각 2원이되 관찰사와 병사가 수사를 겸하고 있었다.¹¹⁾ 따라서 이상 4개 도에는 수사가 따로 차견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상도는 병사·수사 각 3원으로서 좌도·우도의 병사와 수사가 있고, 겸직으로서 관찰사가 병사·수사를 겸하였다. 전라도는 병사 2원으로 병사 1인에 관찰사 겸임 1원, 수사는 좌·우도 수사 2원과 관찰사 겸임 1원, 충청도는 병·수사 각 2원이되 각 1원은 관찰사 겸임, 경기도는 관찰사 겸임의 병사 1원, 수사 2원은 관찰사 겸임 1원에 수사 1원이었다.¹²⁾ 이 가운데 경기 수군절도사는 1485년(성종 16)에 혁파되었으므로 전문 수군절도사가 보직된 곳은 경상·전라·충청의 하삼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병사권과 수사권 분리의 원칙이 운위될 수 있는 것은 병사와 수사가 동일인이 아니었던 이 3개도뿐이었던 것이다. 특히 경상·전라 두 도는 왜구와의 접촉이 많아 수군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병사와 수사 통솔권의 한계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555년 을묘왜변이 일어난 후 해상을 통한 수도 침입을 대비하고자 1556년(명종 11) 1월에 경기수영을 재설치하였다.¹³⁾ 따라서 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 수사가 전임 보직된 형태의 지휘체계가 임진왜란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임진왜란 시기 까지 경상좌수군의 최고 지휘관이 근무하는 주진인 경상좌수영의 설치 및 移營에 대해 살펴보자. 경상좌수영이 최초로 설치된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 초기 경상좌도의 최고 지휘관은 좌도 도만호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11)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 條

12) 위의 책, 같은 조.

13) 『明宗實錄』 권20, 11년 1월 4일(甲子)

1407년(태종 7)에 부산포에는 좌도 도만호가 있었으며 내이포에는 우도 도만호가 있었다고 한다.¹⁴⁾ 그리고 1413년(태종 13)에 경상수군절제사를 좌우도로 분치했다는 것과¹⁵⁾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 본영을 부산포에 설치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동래, 거제도)에 의하면 부산포에 경상좌수사의 전신인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가 있었으며, 거제 오아포에 경상우수사의 전신인 우도수군도안무처치사가 있었다.¹⁶⁾ 따라서 경상좌수영은 최초 부산포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주진이었던 해운포는¹⁷⁾ 1457년 일시 혁파되어 해운포의 해운대 북쪽 부근 산기슭에 목책을 설치하여 군사 50명으로 수비하도록 하는 등 축소 운영되었다.¹⁸⁾ 그러다가 이듬해(1458)에 해운포는 다시 설치되었다.¹⁹⁾ 1459년(세조 5) 1월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수군처치사의 본영이 왜선의 초항처로서 主將이 倭人과 혼재하고 있어서 주장의 거처로는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울산 개운포로 옮겨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후 개운포로 수영을 옮겼다.²⁰⁾ 그

14) 『太宗實錄』 권14, 7년 7월 27일(戊寅)

15) 『太宗實錄』 권25, 13년 4월 7일(乙卯)

16) 이러한 근거로 1426년(세종 8년) 11월 경상좌도의 병마 도절제사·수군 도안무처치사를 혁파하였다가(『世宗實錄』 권34, 8년 11월 6일(乙未)), 언제 복설되었는지 명확히는 않지만, 1438년(세종 20) 李格을 경상좌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로 임명한 것을 보면(『世宗實錄』 권80, 20년 3월 6일(庚寅)) 이후에도 존치된 것으로 보인다.

17) 『國譯 莢營誌』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 동래부에서 남쪽으로 10리 지점인 남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남촌이 오늘날 해운포이며, 같은 책에 “임진왜란 직후 잠시 부산진성으로 이설된 적이 있었지만 곧 해운포로 환원되었으며...”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영의 주진은 동래 해운포임을 알 수 있다(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莢營誌』 4~5쪽).

18) 『世祖實錄』 권6, 3년 1월 16일(辛巳)

19) 『世祖實錄』 권14, 4년 11월 14일(戊戌)

20) 『世祖實錄』 권15, 5년 1월 20일(癸卯); 『成宗實錄』 권77, 8년 윤2월 11일(己酉); 『中宗實錄』 권13, 6년 2월 22일(癸卯); 『新增東國輿地勝覽』 울산군 관방조 등

후 1477년(성종 8)부터 다시 개운포에서 부산포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었다. 그러다가 1521년 수영을 동래 해운포로 옮기자고 高荊山이 건의하였다.²¹⁾ 이후 1544년 순변체찰사 李苞가 건의하기까지 수차례의 이설 논의를 거친 후 수영을 해운포로 옮기는 것이 가시화되었다.²²⁾ 이때 해운포로 옮긴 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료에 1547년 개운포만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1544~1546년 중에 수영은 개운포에서 동래 해운포로 이영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아울러 수군진보의 축성도 이루어졌다. 조선초기에는 각 포에진을 설치했지만 城堡를 쌓지 않은 것은 왜구가 창궐하므로 장졸들로 하여금 병기와 양향을 모두 가지고 수상에서 막으라고 한 취지였다. 그러나 병기와 군량을 모두 船中에 실을 수 없고 적병이 갑자기 육지로 올라와 먼저 창고와 병량을 불사르거나 船上에서 패하여 물자들을 단번에 잃게 되면 장졸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성보를 설치하여 원병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축성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서 남해안의 진보가 적극적으로 축조되었다.

그리하여 1485년(성종 16)~1491년(성종 22) 사이 수군의 영·진에 관한 성보를 쌓는 1차적인 조치가 있었다, 성종대의 1차적인 수군 영·진에의 성보 축조에 이어 중종 대에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수륙군의 합방조치와 함께 수군 영·진에의 성보 축조가 계속 추진되었으며 1522년(중종 17)까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 수군 영·진도 성보를 가지게 되었다.²⁴⁾ 이 기

21) 『中宗實錄』 권53, 20년 2월 12일(辛丑)

22) 『中宗實錄』 권104, 39년 9월 18일(甲寅)

23) 1544년 9월에 이영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이영논의를 한 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24) 나동욱,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수군 영·진성」 『부산성곽』 부산박물관, 2016, 300쪽.

간 중 경상좌수영 관하 수군진들에 대한 축성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수영의 수군 지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군 조직의 지휘계통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상위의 직책인 수군절도사는 주진의 統領은 물론 거진·제진을 지휘 통솔하는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첨절제사는 거진의 장으로서 만호와 마찬가지로 각 포에서 실제로 오래 종사한 사람이 서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²⁵⁾ 수군 지휘체계상 중견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위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²⁶⁾ 우후는 수군 주진의 부지휘관으로 수사의 지휘 아래 諸浦를 統禦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⁷⁾ 수군만호는 각처 浦鎮의 수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장이며, 지휘체계상 수군절도사와 첨절제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만호는 항상 해상방어에 임하고 병선·화통·화약 등을 정비하며, 포진의 회계 물품 출납의 책임을 지며 해상의 기상변화를 기록하였다.²⁸⁾

조선의 수군 편제는 세조대의 진관체제가 완료되면서 그 골격을 드러내었다. 각 도 단위의 수영과 속진은 이후 對倭 관계의 부침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다소간의 변화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대체로 임진왜란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²⁹⁾

마지막으로 경상좌수영을 중심으로 수군진과 세력(함선 규모)

25) 『太宗實錄』 권32, 16년 8월 8일(丁卯)

26) 方相鉉,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74쪽.

27) 위의 책, 75쪽.

28) 위의 책, 75~77쪽.

29) 선초의 수군 편제와 수사제 확립을 다룬 논고는 다음과 같다. 이재룡, 「조선 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집, 1970;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오종록, 「조선 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상·하) 『진단학보』 59, 60호, 1985; 장학근,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창지사, 1988; 방상현,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오봉근, 「14세기말~16세기의 수군」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의 변화에 대해 진관체제 시기와 임진왜란 시기로 나누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임진왜란 시기에 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 연안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도의 수군력 현황은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충청수군도 부원하였기 때문에 충청수군도 포함하여 『經國大典』에 보이는 경상좌우도와 전라좌우도, 충청도의 수군 진포와 세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經國大典』에 보이는 하삼도 수군 진포와 세력

도별 주진	주진 휘하 진포	군선수
경상좌수영	12개 진포 개운포(주진), 부산포, 두모포, 감포, 해운포, 칠포, 포이포, 도포, 서생포, 대대포, 염포, 축산포	총 89척 (대맹선 8, 중맹선 22, 소맹선 59) ³⁰⁾
경상우수영	11개 진포 오아포(주진), 제포, 옥포, 평산포, 지세포, 영등포, 사랑, 당포, 조라포, 적량, 안골포	총 102척 (대맹선 12, 중맹선 44, 소맹선 46)
전라좌수영	9개 진포 내례포(주진), 사도진, 회령포, 달랑, 여도, 마도, 녹도, 발포, 돌산포	총 49척 (대맹선 10, 중맹선 23, 소맹선 16)
전라우수영	10개 진포 황원곶 주랑(주진), 임치, 검모포, 법성포, 다경포, 목포, 어란포, 군산포, 남도포, 금갑도	총 49척 (대맹선 12, 중맹선 20, 소맹선 17)
충청수영	6개 진포 회이포(주진), 소근포, 당진포, 파지도, 마량, 서천포	총 69척 (대맹선 11, 중맹선 34, 소맹선 24)

※출처 : 『經國大典』에서 관련 내용만 정리하였음

위 <표 1>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진과 보유 군선을 정리한

30) 여기서 실제 군사가 승선하지 않은 무군소맹선은 제외하였다.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 100여 년 전의 현황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와 상당 부분 다르다. 군선 수와 진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경상우수영의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 경상좌수영이다. 경상좌수영의 규모가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왜구들의 침입 빈도에 따라 수군진을 경상도 쪽에 다수 설치한 조정의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임진왜란 시기와 다르게 충청수영도 상당한 규모의 수군전력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전라좌·우수영의 군선수가 똑 같다는 점도 특이하다. 당시는 맹선체제였고 진관체제에 속한 수군의 조직이었으므로 이 시기 연해 제읍은 수사 관할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550년대 제승방략제의 도입에 따라 수군 역시 제승방략의 분군법을 적용하여 연해지역의 포진뿐만 아니라 연해 제읍까지 수사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진관체제 아래에서의 수군은 행정구획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해지역 요해처에 설치된 수군진만을 묶어 진관조직으로 편성하였다. 다시 말해 진관체제 아래에서는 수군이 연해안의 각 진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연해지역 각 읍에까지 수군 기지를 설치하여 수사 관할 아래에 둬으로써 종전의 해방체제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었다.³¹⁾

따라서 연해지역 각 읍의 수장들인 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등은 수사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시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전선도 맹선체제에서 판옥선체제로 전환되었다.

31) 李恒福, 『白沙集』 권6, 「以都體察使在湖南事宜劃一劄」; 조원래, 『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1, 269쪽.

〈표 2〉 임진왜란 시기 하삼도의 진포

도별 주진	주진 및 휘하 진포
경상좌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관포(2관 12포) - 2관: 울산, 기장 - 해운포(주진) 및 11포: 부산포, 다대포, 서생포, 포이포, 두모포, 개운포, 서평포, 염포, 감포, 칠포, 축산포
경상우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관포(8관 20포) - 8관: 웅천, 진해, 고성, 거제, 사천, 남해, 곤양, 하동 - 오아포(주진) 및 19포: 가배량, 제포, 영등포, 적량, 옥포, 평산포, 지세포, 사량, 당포, 조라포, 안골포, 미조항, 상주포, 곡포, 소비포, 가덕, 삼천포, 천성보, 울포
전라좌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관포(5관 6포) - 5관: 순천, 보성, 낙안, 흥양, 광양 - 내례포(주진) 및 5포: 사도, 방답, 여도, 녹도, 발포
전라우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관포(14관 13포) - 14관: 장흥, 나주, 흥덕, 강진, 무안, 고부, 해남, 함평, 부안, 영암, 영광, 옥구, 진도, 무창 - 황원곶 주량(주진) 및 12포: 임치, 검모포, 다경포, 군산포, 목포, 법성포, 남도포, 가리포, 어란포, 회령포, 금갑도, 이진
총청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관포(13관 6포) - 13관: 홍주, 태안, 서산, 한산, 임천, 해미, 결성, 면천, 보령, 남포, 비인, 당진, 서천 - 회이포(주진) 및 5포 ; 안흥, 소근포, 마량, 평신, 서천포

※ 출처 : 『李忠武公全書』 권2~4(狀啓); 李舜臣, 『亂中日記』; 『續大典』 등에서 종합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좌수영의 규모는 경국대전에서의 규모보다 축소된 면이 있다. 다시 말해 제승방략체제의 시행에 따라 연해 제읍이 수사 관할로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읍 수군이 편입된 경상좌수영은 다른 수영에 비해 규모가 작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군과 기장현의 2개 고을이 읍 수군으로, 주진인 해운포를 비롯하여 부산포, 다대포, 서생포, 포이포, 두모포, 개운포, 서평포, 감포, 칠포, 축산포 등 11개 진포수군이 편성되어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진인 해운포에는 수군절도사가, 부산포와 다대포에는 첨절제사가 주둔하였으며, 기타 진포에는 수군만호가 주둔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전선과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다.³²⁾

3. 임진왜란의 발발과 경상좌수군의 초기대응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좌도 부산포 부근에서 벌어진 최초의 상황은 이순신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달 13일 왜선 40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와서 닿았는데, 적의 세력이 벌써 이렇게 되었으니 극히 염려스럽다”고³³⁾ 한 경상도 관찰사 金晬의 통보가 4월 13일 개전일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어서 경상좌수사 박홍이³⁴⁾ 경상우수사 元均에게 보낸 서장에는 다음과 같이 개전 이틀째인 4월 14일의 전투 상황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32) 경상좌수영 휘하 수군진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1530년대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시기의 수군진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다만 제 4장에서 임진왜란 후 경상좌수군 진포의 위치 변동을 언급하는 부분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

33)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一」, 「因倭警待變狀(二)」

34) 박홍(1534~1593)의 본관은蔚山. 자는淸源. 조부는朴攄이고, 父는別提朴英斌이다. 母는直長鄭仁傑의 딸이다. 충청도大興縣에서 출생하였다. 1556년(명종 11)에 23세로 무과에 급제, 선전관에 임명된 이후 江界府判官·定平府使·鍾城府使 등 외직을 지냈다. 1592년(선조 25) 1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부임하였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이달 4월 14일 새벽 6시경에 황령산 봉수군 배돌이가 와서 ‘왜적들이 부산포의 우암에서 3패로 결전해 있다가 해 뜰 무렵에 부산포 성을 포위하고 점전하는데, 포를 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하였습니다.’고 보고하는데 부산포가 그러하거니와 서평포와 다대포는 벌써 길이 막혀 구원병마저 아직 달려가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합니다.³⁵⁾

이와 같이 개전 초기 부산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상좌수사 박홍의 서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군을 지휘하여 적을 맞아 싸워야 했던 박홍은 장계를 올려 개전 사실을 가장 먼저 조정에 보고하고 주변 제장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하였다. 휘하 수군을 소집하여 적과 싸우지 않고 본영방어도 포기한 채 후퇴를 거듭해 서울까지 물러났다.³⁶⁾

경상좌수사 박홍의 초기 행태에 대해서 당시 조정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은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먼저 성을 버렸다.”고 표현하였다.³⁷⁾ 사헌부에서는 前 수사 박홍의 전의 죄를 소급하여 律에 의하여 처단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³⁸⁾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남해안의 최전방 수군절도사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박홍이 휘하 세력을 집결하지 못한 채 일본군에 맞서지 못했던 것은 사전에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일본의 침략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기존의 왜구 침략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세력이 침입해 왔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여 시간을 버는 등 방어대책을 펴지 못한 채 도주

35)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因倭警待變狀(三)」

36) 『宣祖實錄』 권26, 25년 4월 17일(丙午); 류성룡, 『징비록』 권1.

37)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28일(丙辰)

38) 『宣祖實錄』 권32, 25년 11월 15일(辛未)

부터 하고 말았다.³⁹⁾

그런데 경상좌수군이 설사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의 대규모 침공을 저지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전근대 시기 돛과 노를 이용하는 수군력으로는 대규모로 침입해 오는 적을 역조류와 역풍의 조건 하에서 맞아 싸우기란 어려운 현실이었다. 실제 일본군은 대마도에 도착한 후 동풍 또는 동남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등 항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출항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 전 시기를 통해 볼 때 일본군은 동풍을 타고 나오는데 부산 쪽에서 적을 향하려면 서풍을 타야 하므로 逆順이 달라 서로 맞서기 어려운 형세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어쨌든 바다에서 적을 물리치지 못한 경상좌수군은 수사 박홍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함선 수의 절대적 열세라는 조건 하에서 수전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진별로 보유 함선을 자침시킨 후 자체 진성 방어 형태의 육전을 수행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부산진성 전투였다. 경상좌수영 휘하 진포 중 가장 먼저 전투가 벌어진 부산진성 전투의 경과에 대해 살펴보자.

1592년 4월 13일 오후에 일본군 제 1번대는 전선 700척에 18,700명의 병력을 싣고 부산포 앞 절영도 해상에 도착하였다. 당시 부산진 첨사 정발은⁴¹⁾ 전선 3척을 이끌고 절영도에 나가 있다가 일본군의 대규모 침략을 확인하고는 급히 성 안으로 들

39) 이민웅, 앞의 논문 128쪽.

40)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8일(己未)

41) 부산진 첨사 정발(1553~1592)은 본관이 경주이며 자는 子固이고, 군수 明善의 아들로 1553년(명종 8)에 출생하였다. 1577년(선조 10) 25세에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해남현감, 거제현령, 籌司郎, 위원군수를 지낸 다음 훈련부정(종3품), 사복시정(정3품)을 거쳐 절충장군이 되어 1592년 초에 부산진 수군첨절제사가 되었다(李炯錫, 『壬辰戰亂史』上卷,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239쪽).

어왔다. 그는 성을 지키도록 휘하에 명령을 내리고는 전선을 모조리 자침시켜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부산진성에는 약 1,000명의 軍民이 있었다.

한편 일본군은 13일 저녁 무렵 부산진성의 방비태세가 견고한 점을 확인하고는 14일 아침부터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4일 아침 일본군은 우암동 쪽에서 상륙하여 성내 수비상황을 관망하면서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정발은 동문루 위에 올라 병사와 백성들에게 성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樂官을 불러 통소를 불게 하여 군민이 모두 진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결사의 의지로 守城할 것을 결심하였다.

일본군은 서신을 보내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정발은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3방향으로 공격을 해 왔다. 그들의 조총수들은 서문 밖 높은 곳에 올라 성안을 향해 일제히 쏘면서 성벽을 올라오려고 하였다. 정발은 흑색 갑옷을 입고 서문을 지키면서 쉬지 않고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전투를 지시하였으며, 군민들의 사기는 높았다.

그러다가 성의 북쪽이 방비태세가 약한 점을 간파한 일본군은 북쪽 성벽을 타고 넘어와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와중에 정발은 일본군의 조총이 투구를 관통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군민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당하지 못하고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⁴²⁾

다음으로 다대포전투를 살펴보자.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으로 동래부를 공격하고 다른 쪽으로는 서평포와 다대포를 공략하였다. 서평포는 당시 다대포에 통합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다대포전투의 경우 후대 자료지만 일부 자료를 통해

42) 李炯錫, 『壬辰戰亂史』上卷,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234~237쪽.

확인할 수 있다.

다대포첨사진은 낙동강 하구에서 부산 방향으로 꺾이는 모퉁이를 지나 첫 번째 해안 포구에 위치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근처의 장림포에 있었다가 다대포로 이동했다고 한다.⁴³⁾

다대포전투 역시 해전이 아닌 육전으로 치러졌다. 당시 다대포첨사는 尹興信이었다.⁴⁴⁾ 그런데 다대포전투에서는 전투가 크게 2번 있었는데, 첫날 전투에서 공격해 온 일본군을 다대포진의 자체 세력만으로 물리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다대포진을 공격해 온 일본군에 대항하여 격전을 벌인 끝에 첫날은 승리하였다. 이후 부하들이 적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알고 피하자고 청했으나 첨사는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부산진성 전투에서의 정발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윤흥신은 이튿날 세력을 강화해서 다시 공격해 온 일본군에 대항해 아우 興梯와 함께 분투하다가 전사하였다. 윤흥신의 전사와 함께 다대포진성도 함락되고 말았다.⁴⁵⁾

이러한 윤흥신의 순절 기록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선조실록』에는 “윤흥신은 왜적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류성룡의 『징비록』에는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힘써 싸우다가 죽임을 당

43) 다대포라는 지명의 유래는 큰 포구가 많은 바다라는 데서 비롯되며, 『일본서기』에는 다다라(多多羅)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일찍부터 왜구의 출몰이 잦아서 국방상 중요한 요새지였다. 1407년(태종 7) 7월에 다대포천호를 두었다가 1417년(태종 17)에 만호영을 설치하였다. 조선 세종 때는 이곳에 수군만호영을 설치하여 수군 123인과 병선 9척을 배치하였다. 1490년(성종 21) 11월에 다대포성을 축성하였는데, 높이 4m, 둘레 560m의 규모였다. 이후 1544년(중종 39) 9월에는 다대포에 첨사를 배치하였다(제장명,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서』 해사 해양연구소, 2018, 239쪽).

44)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14일(癸卯), 尹興信(?~1592)의 본관은 坡平. 아버지는 인종 때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던 尹任이다. 윤흥신은 1582년(선조 15)는 진천 현감에 부임하였으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1592년(선조 25)에 다대진 첨절제사로 임명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 부산항도문화전차대전 윤흥신조).

45) 김석희, 「입진왜란과 부산항전」 『항도부산』 제9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2, 60~62쪽.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조 때 좌찬성을 지낸 具思孟이 지은 『縲亡錄』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힘껏 싸운 끝에 이를 물리쳤다. 이튿날 많은 수의 왜적이 쳐들어 오자 군졸은 모두 도망쳤고, 윤흥신은 홀로 남아 온종일 활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조 때의 학자 신경이 지은 『再造藩邦志』에는 “도적이 병사를 나누어서 서평포·다대포를 함락시켰다.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힘껏 싸웠으나 피살되었다”라고 적혀 있다.⁴⁶⁾

한편 당시 경상좌수영의 2관 중 하나인 기장현감은 임진왜란 발발 시 李用浚이 근무하였다.⁴⁷⁾ 그러나 당시 일본군과 싸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초전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다는 것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장현도 다른 군사진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관 중 다른 하나인 울산군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군이 침입하여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후, 세 길로 나누어 울산으로 닥쳐왔다. 당시 군수 李彦誠은 조방장의 임무로 동래성에 집결하여 동래성 전투에 참가하였다. 제승방략제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수사 관할 하에 있었던 지방 수령 중 여전히 육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울산군 수도 경상도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임지를 떠나 동래성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동래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언성은 일본군에게 생포되어 고니시의 서신 전달을 요구받는 치욕도 당했다.⁴⁹⁾ 이와

46) 한국학중앙연구원 -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 윤흥신조

47) 『機張郡誌』 上卷, 「선생안」 2001.

48) 예컨대 전라좌수군의 경우 임진왜란 발발 시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에 순천부사 권준은 원래 수군의 중위장으로 편성되었지만 관찰사의 지시에 동원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49)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14일(癸卯)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좌수군 관할 2관 역시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채 함락되고 말았다. 기타 수군진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초전에 도주 또는 패퇴한 것으로 보인다.

4.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

가. 임진왜란 시기(1592~1596)의 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 발발 시 경상좌수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패퇴하고 말았다. 특히 경상좌수사 박홍은 본진을 소각하고 죽령으로 후퇴하여 적을 방어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령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후퇴하였다.

그는 행재소로 찾아가던 중, 도원수 金命元을 만나 左衛大將에 임명되어 임진강 방어에 참여하였다. 이어 신할·유극량 등과 함께 병사를 나누어 과주에서 싸웠으나 모두 패해 평양으로 탈출하였다. 평양에 도착한 뒤, 사헌부를 위시한 조신들로부터 영토를 지켜야 할 신하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군율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때가 전시이고 또 후퇴하던 과정에 종군한 것이 감안되어 처벌을 면하였다.

그 뒤 같은 해 6월에 평양이 함락되자 순변사 이일과 함께 평산으로 들어가 병사를 모으고 있던 중, 당시 이천에 있던 세자의 명을 받고 세자를 호위 시종하면서 성천으로 들어갔으며 우위대장·의용도대장에 임명되었다. 평양 방면으로 나아가 여러 차례 일본군과 접전했으나 크게 공을 세우지는 못하였다. 1593년 1월에 평양이 수복되자, 김명원을 따라 과주까지 종군하였다. 그러

나 지병이 재발해 치료를 위해 귀향하던 중 사망하였다.⁵⁰⁾

이와 같이 경상좌수사는 개전 후부터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수사 역시 직함을 바꿔서 육전에서 활동하였다. 다만 좌수사 직책만 부여하여 그 직을 계승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테면 경상좌수사 박홍의 후임으로 1592년 11월에 李由義가⁵¹⁾ 임명되었다.⁵²⁾ 그는 검사복으로 무과에 급제한 뒤⁵³⁾ 1587년에는 충청도 조방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⁵⁴⁾ 1591년 1월에는 전라좌수사 직을 수행한 바 있다.⁵⁵⁾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전라도 조방장의 임무를 띠고 팔랑치에 주둔하면서 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⁵⁶⁾ **이유의를 경상좌수사로 제수되었지만 본영 수군이 이미 흩어진데다가 부산지역으로 부임할 수 없어서 안동의성의흥 등지에 머물면서 육전에 종사하고 있었다.⁵⁷⁾**

그러다가 경상좌수군이 나름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강화교섭기에 접어들어가면서 부터였다. 1593년 4월에 장기현감과 밀양부사를 거친 李守一이⁵⁸⁾ 경상좌수사로 부임하였

50) 한국학중앙연구원-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 박홍조

51) 이유의의 신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52)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9월 1일(丁巳)에 이유의를 경상좌수사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53) 『明宗實錄』 권25, 14년 9월 20일(戊子)

54) 『宣祖實錄』 권21, 20년 7월 24일(辛亥)

55) 『宣祖實錄』 권25, 24년 1월 5일(壬寅)

56)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6월 1일(己丑)

57) 申佐, 『亂蹟彙撰』 上 임진년 11월조

58) 이수일(1554~1632)은 본관은 경주. 자는 季純, 호는 隱庵. 主簿 李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생원 李自琛이다. 아버지는 증 영의정 李鸞이며, 어머니는 참봉 禹聘齡의 딸이다. 아들은 우의정 李滄이다. 1554년(명종 9) 충주에서 태어났으며, 1583년(선조 16) 별시 무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북방 지역 근무를 마친 후 1584년 권지훈련원봉사, 1586년 삼수소농보권관, 1590년(선조 23) 선전관을 지냈다. 장기현감으로 부임하여 재직 중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장기현을 공격하는

다.⁵⁹⁾ 그는 장기의 包伊浦에 진을 치고 전선을 다수 건조하면서 나름대로 수군력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⁶⁰⁾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경주 판관 朴毅長과 울산 군수 金太虛 등이 울산에 있는 적과 며칠 동안 싸워 적 50여 명의 수급을 베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⁶¹⁾ 이것은 아마도 일본군이 제2차 진주성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많은 병력이 주둔지를 비운 사이에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제2차 진주성전투가 그해 6월 하순에 벌어짐으로써 일본군 9만여 병력이 진주성을 치기 위해 서진하였다. 이러한 시기를 틈타 경상좌도 지역에서는 몇 차례 교전을 통해 전과를 거두었다. 경상좌도 관찰사 韓孝純의 치계에 의하면, ‘태화에 머물러 있는 적들이 퇴각하려고 막사를 불태웠으며, 황산 등지에는 적이 날로 稀疏해지고 있으며, 기장에 머물고 있는 적들도 야군에게 섬멸당하여 縣治가 수복되었다.’⁶²⁾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시기를 틈타 주둔 병력이 빠져나간 경상좌도에 있던 일본군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조선군의 병력이 부족하므로 선조 명의로 명 경략병부에 다음과 같이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 등지의 沿海에 있는 적들의 소굴에는 잔류해 있는 왜적이 적을 것이며 哨戍 또한 허술할 것입니다. 게다가 蓋房에 곡식을 쌓아 놓고 시장을 열어

왜군과 격전 끝에 후퇴하였으나 왜군을 죽인 공을 인정받아 통정대부에 올랐다. 이후 함창(현 상주시 함창읍) 唐橋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1593년 밀양도호부사로 경상좌도수군첨절제사가 되어 울산에서 왜군을 격퇴한 공으로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승진하였다(디지털충주문화대전-이수일조).

59)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24일(丙子)

60) 申佺, 『亂蹟彙撰』 下, 癸巳, “長鬐縣監李守一 陞拜爲密陽府使 未幾陞拜左水使 率各浦邊將 結陣於長鬐地包伊浦 召集漁船 且求船匠多造戰船 以待變”

61) 『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23일(丙子)

62)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2일(甲子)

物貨를 매매하고 있으니 저들의 허술한 틈을 타서 火攻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東邊에 있는 여러 왜적이 섬멸을 당하여 이 일대의 군현이 점차 수복되고 있으니, 만약 精銳軍을 선발하여 저 잔류해 있는 왜적이 많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한 지방을 무찔러 저들의 營寨와 군수품을 불태우고, 또 웅천 등지의 적을 격파하여 要害處를 점거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개통한다면 저들은 장차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진퇴 간에 의거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孫臏이 곧바로 魏都로 달려가고 韓信이 먼저 趙壁으로 들어갔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우 외롭고 약한 병력으로 이미 西路를 방어하고 있으므로 다시 동쪽을 공격한다는 것은 형세가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협조하시어 全勝의 공을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⁶³⁾

이러한 조정의 방침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경상좌수사 이수일이 일본군선 4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전과는 다음 기록과 같이 조선 조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상좌수군이 거둔 대단한 전과로 인식되었다.

"경상 좌수사 이수일이 적선 4척을 나포하였구나. 좌수영에서 이런 勝捷의 소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매우 가상하니 수일은 加賞하고 啓本에 付記한 군공이 있는 사람은 즉시 서둘러 논상하되, 그 중 한 사람을 특별히 堂上으로 삼아 모든 군사들을 聳動시키라. 그리고 관교(교지)를 이번에 온 사람에게 주어 군중에 가서 頒給하게 할 것이며 승첩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논상하라. 軍人의 공을 啓聞하지 않았으니 수일로 하여금 즉시 등급을 정하여 계문케 하여 때를 넘기지 말고 상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수일이 왜적의 화약을 노획하여 쓰는 것을 익히다가 失火하여 수일 등 10여 인이 부상하였다 하니, 알맞은 약을 아울러 내려 보내라."⁶⁴⁾

일부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좌수사 이수일이 이끈 경상좌수군이 도포와 감포 등지에 주둔하면서 왜선 몇 척을 사로잡았다

63) 위의 책 같은 조

64)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24일(丙子)

고도 하였다.⁶⁵⁾ 이수일은 이에 앞서 6월 8일에도 경상좌병사 권응수와 함께 울산 서문 밖 4~5리 거리에 포진하고 있던 적들과 다섯 차례의 접전을 하여 적의 軍幕을 태우고, 적병 50여 명을 죽였으며, 수많은 왜인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전공을 거두기도 하였다.⁶⁶⁾

이와 같이 임진왜란 초기에는 와해되다시피 했던 경상좌수군이 어느 정도 전과를 거두기 시작하자 조정에서는 경상좌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예컨대 1593년 겨울에 舟師督戰宣傳官 都元亮이 충청우후와 충청도 船匠人 30여 명을 이끌고 강원도 월송포의 소나무를 벌목하여 전선 9척을 만들었다.⁶⁷⁾ 이 신조 전선들을 경상좌수영으로 옮겨 이수일의 통제 하에 두고 이러한 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동해안 남부지역의 낙오한 일본군들을 사로잡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⁶⁸⁾

한편 당시 읍 수군을 지휘하던 기장현감은 이용준에 이어서 1592년 10월에 울산에 거주하던 朴弘春이 임시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1593년 9월에 승진하여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596년 10월에 체직되었다. 그 후 역시 울산에 거주하던 李謙秀가 1596년 12월에 임명되었다가 이전 현감 박홍춘과 異姓사촌 간으로 파악되어 상피원칙에 따라 바로 교체되었다. 이어서 영천에 거주하던 李庭堅이 1596년 12월에 임명되어 정유재란 시기 내내 활동하였다.⁶⁹⁾

65) 申佐, 『亂蹟彙撰』, 下 계사년조

66)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6일(戊午)

67) 申佐, 앞의 책, 갑오년조. 한편 『宣祖實錄』 권52, 27년 6월 16일(癸亥)에는 “강원도에서 戰船을 제조하면서 많은 양의 船材를 벌채하고도 제조한 배는 겨우 다섯 척에 불과하고”라 하여 기록의 차이가 있다

68) 申佐, 위의 책, 갑오년조에는 수사 이수일이 배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서 도원랑 등과 합세하여 동해의 바닷가에 낙오한 조무래기 왜적들을 많이 사로잡아 죽였다(水使李守一 具備什物 與元亮等合勢 而東邊零賊 多捕斬之)고 기록되어 있다.

69) 기장군, 앞의 책, 선생안

다음으로 울산군수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은 金太虛였다.⁷⁰⁾ 임진왜란 개전기의 김태허의 활약에 대해서는 울산 지역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9월 순찰사 김수와 병사朴晉이 김태허를 울산군 假守로 삼아 흠어져 달아났던 병사를 불러 모으고 의병 봉기를 독려하자, 이석중이 가장 먼저 그 부름에 응하였다. 10월 적선 6척이 기장에서 곧장 울산군으로 향해 오자, 그는 가수를 따라 힘껏 싸워 적선 2척을 빼앗고 많은 적의 목을 베었다. 이에 순찰사와 병사가 함께 馳啓하여 가수를 실제 군수로 삼았다.”⁷¹⁾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1592년 10월에 일본군이 전선 6척으로 기장으로부터 쳐들어오고, 일본의 육군 300명이 何尔浦⁷²⁾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김태허가 지휘하는 관군이 주사장 서인충 등과 더불어 종일 싸워서 육지에서는 일본군 50여 급을 베었으며, 바다에서는 40여 급을 베고, 적선 2척을 나포하였다.⁷³⁾ 이 공로로 그는 奉正大夫 軍器寺 正에 승진되고, 정식 울산군수로 임명되었다.⁷⁴⁾

70) 김태허(1555~1620)의 본관은 廣州. 자는 汝寶, 호는 博淵亭. 아버지는 좌찬성 金希曾이다. 1580년(선조 13) 26세 나이로 武科에 급제한 무신으로 玉浦萬戶로 첫 관직에 나갔다. 그는 1590년에 임지가 바뀌면서 일정한 직무가 없는 散官으로 있었다고 한다. 김태허는 초기에 밀양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하다가 공적을 인정받아 울산 가군수로 발탁되었다고 보아진다. 임진왜란 개전기에 경주, 울산, 연양 일대에서는 관군과 의병 항쟁이 활발하였다고 한다. 특히 1592년 4월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1593년 4월까지 1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울산에서 활약한 밀양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은 襄武公 金太虛였다(김강식, 「임진왜란기 襄武公 金太虛의 활동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8. 5)

71) 『香山集』 권15, 墓碣銘, 宣武功臣守門將李公墓碣銘 并序.

72) 현재 기장군의 아이포를 말한다.

73) 『宣祖實錄』 권38, 선조 26년 5월 23일(丙子); 『울산부 여지도 신편읍지』 1786년, 古蹟, 壬辰倭變事蹟.

74) 『울산부 여지도 신편읍지』 1786년, 古蹟, 壬辰倭變事蹟; 『慕夏堂文集』 권3, 附錄, 龍峴事實摭錄,

이렇게 경상좌수군 소속 지휘관들이 해전과 육전에서 나뉘는 활약을 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자급을 올려주고 포상을 시행하였다. 예컨대 1594년 9월에는 이수일을 수사(병사)급 이상 장수 11인에 포함하고 울산군수 김태허는 조방장급 5명의 장수 중에 포함하여 각각 격려 물품인 耳掩 3령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⁷⁵⁾ 이와 같이 경상좌수군은 강화기간 중 일본군의 활동이 위축되는 시점을 틈타서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강화 기간 중에도 울산 군수 김태허는 울산지역 일본군의 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예컨대 ‘서생포 적의 소굴은 전보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금년부터는 온 들판에 개간하고 있으며 양식을 운반하는 배들도 전보다 배나 많이 출입할 뿐 아니라, 성도 날마다 더 올려 쌓고 전에 排設한 垓子도 다시 파고 그 안쪽에는 소나무를 柵木처럼 심고 있다’고⁷⁶⁾ 보고하였다. 능력에 맞는 抗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정유재란 시기(1597~1598)의 활동

강화기간이 절정에 달한 1596년에 이르러 경상좌수사가 교체되었다. 좌수사 이수일은 체찰사 李元翼 휘하의 별장으로 전보되고 후임 좌수사직은 웅천현감과 동래부사를 거친 李雲龍이⁷⁷⁾ 맡

75) 『宣祖實錄』 권55, 27년 9월 21일(丙申)

76) 『宣祖實錄』 권61, 28년 3월 29일(壬寅)

77) 이운룡(1563~1610)의 본관은 載寧이며 자는 景見, 호는 東溪이고 주거주지는 淸道였다. 증조부는 제용감 정을 지냈으며, 조부는 副寧府使였고, 부친 夢祥은 中直大夫로서 남해현령을 지냈다. 이운룡은 청년시절 정로위에 소속되었다가 그의 나이 22세이던 1584년(선조17) 무과 별시에 응시하여 병과 85위(102/202)에 올랐다(『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 이후 1587년 선전관에 임명되고, 1589년 정월에 옥포만호로 임명되었다. 옥포만호로 3년째 근무하던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근무지인 옥포해전에 참가하였다. 이 싸움에서 그는 선봉장으로 임전하여 다른 경상우수군과 함께 적선 5척을 분멸시키는 데 기여하

게 되었다.⁷⁸⁾ 당시 명·일간의 강화교섭으로 일본 수군이 명 사신들을 따라 일본으로 철수하자 경상좌수군은 울산의 염포로 나아가 주둔하였다.⁷⁹⁾ 그러다가 1597년 1월 15일에 加藤清正이 도해하여 서생포를 점거하자 경상좌수군은 퇴각하여 포이포에 둔진하게 되었다.⁸⁰⁾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경상좌수군은 전투를 하지는 못한 채 적의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한 후 신속하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예컨대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겸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 의정부 우의정 이원익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기장 현감 李汝璽의 馳報에, 청정이 이달 13일에 다대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먼저 온 배가 2백여 척이라 하였고, 15일에 이정견이 또 치포하기를 '왜의 큰 배 1척과 왜노 70여 명 및 왜장 희팔이 즉시 부산에 도착하여 牌文을 보냈다.' 하였습니다."⁸¹⁾

경상 등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의 서장에,
"울산 군수 金大虛의 馳報에 '왜적들이 전에 정박했던 곳에 가득히 선박을 屯聚시켰는데, 선박은 그 포구 2마장 남짓 되는 곳까지 빈틈없이 정박했다. 그 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개 5백여 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⁸²⁾

였다. 그 뒤 한산도대첩 등 여러 해전에 참가, 진두에서 용감히 싸워 적군의 內洋 진출을 막아 우리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에 공을 크게 세웠다. 웅천현감과 동래부사직을 거친 후 1595년에는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1596년 이순신의 천거로 경상좌수사에 승진된 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경상좌도의 수군을 주도하였다(제장명, 「이순신을 도운 경상우수영·충청우수영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15).

7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莢營誌』 「先生案」 274쪽; 『亂中日記』 병신년 3월 4일에는 그동안 웅천현감이던 이운룡이 경상좌수사로 발령받아서 왔다는 기사가 보이고, 3월 9일과 10일에는 이순신이 좌수사와 작별 술잔을 나누는 기사가 보인다.

79) 申佐, 앞의 책, 병신년조.

80) 위의 책, 정유년조

81)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1일(壬子)

82)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6일(丁巳)

이와 같이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기장현감 이정견과 울산군수 김태허는 각각 적의 침입 사실을 즉시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적정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유재란이 벌어져서 일본군이 경상좌도 지역을 쳐들어 왔을 때 임진왜란 초기와 마찬가지로 경상좌수군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전선을 건조하고 격군을 구하여 동해안 남부로 보내 경상좌수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지만 몇 척에 불과한 전선만으로 대규모의 적선과 바다에서 교전을 하는 것은 무리였다. 특히 부산 쪽으로 침입하는 대규모의 적을 맞아 교전을 한다는 것은 조선 수군 전체가 와서 막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상좌수군은 일본군이 근접하기 어려운 장소에 주둔하면서 적정에 대한 동향 파악과 소규모의 해전을 수행할 뿐이었다.

한편 정유년 7월에 있었던 칠천량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후 일본군은 좌군과 우군으로 나누어 남원성과 황석산성을 함락시키면서 전라도와 충청도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다가 그해 9월 7일의 직산전투와 9월 16일의 명량해전에서 패한 일본군은 다시 남하하였다. 그들은 순천을 최서단으로 하여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왜성을 축조한 가운데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97년 12월에 접어들어서 일본군은 왜성 축조를 완료하고 방어 태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명군의 수뇌들은 한성에서 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11월에 경리 楊鎬는 울산의 加藤清正 군을 먼저 공격하여 적의 오른팔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략 邢玠와 함께 울산성에 대한 공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① 경리 양호와 제독 마귀는 좌협 부총병 李如梅 군 12,600명과 우협 부총병 李芳春 군 11,600명을 거느리고 충주-안동-경주를 거쳐 울산의 加藤清正 군을 공격하며, 중협 부총병 高策 군 11,700명은 천안-전주-남원으로 이동하여 순천의 小西行長 군을 견제하여 小西行長 군이 加藤清正 군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

② 충청병사 이시언 군 2천명은 좌협군을 지원하며, 경상우병사 정기룡과 방어사 고언백 군 1,300명은 우협군을 지원한다. 경상좌병사 성운문과 방어사 권응수 군 2,200명은 중협군을 지원한다.

③ 도원수 권율은 경상 우조방장 박재우, 전라 감사 황신, 전라 병사 이광악 등이 모병한 군사를 지휘하며, 기타의 조선군을 감독한다. 그리고 권율은 조명연합군의 주둔지 및 숙영지를 사전에 정찰하여 동정군 제독에게 보고한다.

④ 동정군의 전투 장비는 遼陽分守 張登雲이 수송책임을 지며, 군량은 1개월 분량을 명과 조선의 전임관이 수송 책임을 진다. 단 한성 이복은 郎中 董漢儒가 조선 측과 협의하여 명에서 보낸 군량을 일단 한성에 집적한 뒤 각 영으로 수송한다.⁸³⁾

정유년 말에 있었던 이 도산성전투는 당시의 전황에 분수령이 되었다. 이 전투는 당시 명군이 전력을 다해 일본군을 공격한 전투로서 그 의미와 파장은 매우 컸다. 이 전투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전개되는 조명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당시 경상좌수군의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상좌수군이 한 역할은 2가지이다. 한 가지는 군량의 공급이었다. 위의 제④항에 있는 군량 공급 중 일정부분을 경상좌수군이 맡게 되었다. 당시 제1차 울산성전투에 대한 경상좌도

83) 『宣祖實錄』 권94, 30년 11월 7일(甲午); 丁酉; 戊戌; 己亥; 壬寅; 辛亥條;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246~247쪽.

관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래서 명군의 군량 지공을 위해 영남 사람들이 꼭 이길 것이라는 기대에서 있는 힘을 다해 주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송이 가능하였다. 당시 좌도지역으로 곡식을 이송하는 것은 좌수사 이운룡이 담당하여 수송하였다. 군량 수송은 아마도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거둔 곡식을 동해안을 따라 수송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⁴⁾

다른 한 가지는 전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성원을 하라는 것이었다. 공격 계획이 확정되자 경리 楊鎬와 제독 麻貴는 11월 27일에 3협군을 한강의 동작진 일대에 집결시켜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동시에 경상좌수군의 동원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마귀의 접반사 형조판서 張雲翼이 치계한 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제독이 문경에 도착하던 날 신과 도원수 권율을 불러 비밀히 말하기를 ‘거사할 적에 좌도 수사 李雲龍을 시켜 전함을 정제하여 많은 포수를 싣고 서생포 근처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횡행하여 성세를 부추길 수 있게 하려한다. 임시하여 남병 수백 명과 당신네 나라 군병으로서 나를 따를 조총수 2백 명을 발송하여야 될 것이다. 원수는 수사에게 미리 지시하여 배를 많이 모집하여 놓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⁸⁵⁾

위에서 볼 때 당시 경상좌수군에게 기대한 것은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성을 공격하거나 적의 구원군을 차단하는 등의 활약이 아니라 단순히 성세를 돋우는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상좌수군이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그 세력이 약해서 직접 전투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상좌수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자료에도 보인

84) 『宣祖實錄』 권99, 31년 4월 29일(癸未)

85) 『宣祖實錄』 권95, 30년 12월 23일(己卯)

다. 당시 경상좌수군은 장기에 4척의 전선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울산에서 100여 리쯤 떨어진 기장의 한 섬에는 조선의 수병관원 이운룡이 수병 500여 명을 거느리고 섬 안에 숨어 있었으나, 감히 남쪽으로 왜적들을 엿보지 못하였다. 加藤清正 또한 이들을 깔보아 전혀 방비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병력이 약한 척 속였기 때문이다.’라고⁸⁶⁾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산성 공격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경상좌수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전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열세한 전력으로 전황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수군력 운용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일본군의 경상좌도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상좌도 각 진포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일본군의 주침입지역인 경상좌도 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진포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읍수군의 위치는 행정조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 변동이 없었지만 진포 수군의 위치는 16세기 초기에 비해 많은 이동이 있었다.

86) 諸葛元聲, 『兩朝平壤錄』, 『壬辰之役史料匯輯』3권, 國學資料院 影印本, 1995, 150쪽.

〈표 3〉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 진포의 위치변화

구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대)	임진왜란 중 위치
경상좌수영	울산군 개운포	동래부 해운포
염포	울산군 동쪽 23리/수군만호	울산군 동쪽 23리/후기에 혁폐
서생포	울산군 남쪽 53리/수군만호	울산군 남쪽 53리
개운포	울산군(좌수영)	울산군→동래부 남쪽 30리
부산포	동래현 남쪽 21리/수군첨사	동래부 남쪽 21리
해운포	동래현 동쪽 9리/수군만호	혁폐(좌수영)
다대포	동래현 남쪽 54리/수군만호	동래부 남쪽 54리
서평포	동래부 서남쪽 49리/수군만호	다대포에 통합, 남쪽 2리
감포	경주부 동쪽 72리/수군만호	경주부→동래부 남쪽 11리
축산포	영해부 동쪽 14리/수군만호	영해부→동래부 남쪽 12리(1581년 선조 14년 이진)
칠포	흥해군 북쪽 15리/수군만호	흥해군→동래부 남쪽 12리
두모포	기장현 동쪽 5리/수군만호	기장현→동래부 남쪽 25리
포이포	장기현 북쪽 17리/수군만호	장기현→동래부 동남쪽 13리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증보문헌비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 동부지역에 위치했던 수군진들이 대거 동래부 관할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대의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대동지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축산포의 경우 1581년(선조 14)에 이미 동래부 쪽으로 이진한 것이 확인되며 기타 이진한 진포는 선조 25년에 주로 이동했다고 되어있

다.⁸⁷⁾ 그렇지만 1592년(선조 25)에 이진했다는 기록을 당대의 사료 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좌수영 산하 함선들이 부산 부근에 집결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별도로 없으므로 이러한 위치 변동과 수군력의 집결은 대부분 임진왜란 중에 구상했다가 1598년 전쟁이 끝난 후에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향후 침입해 올 일본군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수군기지의 위치 조정에 의해 경상좌도의 수군진포는 대부분 좌수영, 부산포, 다대포 일대로 배치되었다.⁸⁹⁾ 이는 경상좌도의 신장된 해안과 동래 일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좌수영의 예하 수군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수군함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⁹⁰⁾

5. 맺음말

앞에서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조선 수군 중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상좌수군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임진왜란 개전 때부터 일본군의 점령지에 속

87) 『대동지지』 등에 의하면 경상좌도 수군진포의 위치 변화가 선조 25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李昊俊은 앞의 논문(122~123쪽)에서 경상좌수군의 위치 조정이 1592년 4월 이전에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88) 오봉근, 『조선수군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한국문화사 영인본, 1998), 333~334쪽.

89) 李昊俊은 임진왜란 이전에 위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본문에서 전술한 일부 자료에서 염포를 활용하고 포이포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로 언급하는 자료들을 볼 때 일괄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착오이다.

90) 李昊俊, 앞의 논문 121쪽.

함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경상좌수군은 일찍부터 와해되었기에 그 위상은 격하되어 관심 또한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좌수군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상좌수군도 임진왜란 시기 존재하여 분명히 나름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경상좌수군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임진왜란 수군사를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 경상좌수영의 설치와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조선 초기 경상좌수영은 부산포에 위치하였다. 그러다가 울산의 개운포로 이영하였다가 16세기 중반에 동래 해운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당시 일본과의 정세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침략하는 일본군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경상좌수군은 16세기 중반에 제승방략제가 시행되면서 수군진뿐만 아니라 읍수군도 수사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직전 2관 12포로 총 14개 수군부대가 운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상도 동부해안으로부터 낙동강 동쪽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는 수군진들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에 임진왜란이라는 일본군의 대규모 침입 시 바다에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전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육전 위주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좌수사 역시 적에 대응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육전에 참여하였으며, 정발의 분전으로 대변되는 부산진성전투, 윤홍신의 순절로 알려진 다대포진전투 등이 경상좌수군이 담당한 육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다가 강화교섭기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이 제2차진주성전투 참전으로 많은 병력이 경상우도 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경상좌도

지역에 남아있던 일본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이때 울산군수 김태허 등은 육전과 수전을 막론하고 의병들과 합세하여 나름의 전과를 거두었다. 와중에 경상좌수사 이수일은 적선 4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강화교섭기간 중 조정에서도 경상좌수군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판옥선을 건조하여 지원하는 등 나름의 개선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경상좌수군의 전투는 게릴라식 전투 환경에서나 가능하였으며, 대규모 적과 맞서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유재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벌어졌을 때 기장현감과 울산군수는 적을 막을 능력은 없었으며 적의 침입 사실을 보고하는 임무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명군 중심의 울산성 조명연합전투 시 경상좌수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좌수사 이운룡이 주관하여 명군이 먹을 군량을 동해안을 통해 수송 공급하였으며, 적은 병력이었지만 실제 전투에서 위세를 떨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상좌수군도 나름의 위상을 회복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침입을 조기에 막기 위해 흩어져 있던 경상좌도의 수군진을 동래부와 부산포 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위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기록에는 선조 25년에 단행했다고 하지만 실제 위치 조정은 전쟁이 끝난 직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경상좌수군은 임진왜란 초기에 와해되다시피 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 수군에 비해 기여도가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경상좌수사 휘하 鎭浦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이

아쉬운 부문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둘까 한다.

(원고투고일 : 2018. 6. 27, 심사수정일 : 2018. 8. 16,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조선 수군, 경상좌수영, 경상좌수군, 박홍, 정발, 윤희신, 이수일,
이운룡, 김태허, 울산성전투

〈참 고 문 헌〉

자료

- 『太宗實錄』·『世宗實錄』·『世祖實錄』·『中宗實錄』·『明宗實錄』·『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
 『經國大典』·『新曾東國輿地勝覽』·『機張郡誌』上卷, 「先生案」·柳成龍, 『懲愆錄』·李舜臣, 『亂中日記』·李恒福, 『白沙集』·申佺, 『亂蹟疑異』·『李忠武公全書』·『大東地志』·『增補文獻備考』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萊營誌』
 諸葛元聲, 「兩朝平壤錄」壬辰之役史料匯輯, 3권, 國學資料院 景和印, 1995

단행본

- 國防省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方相鉉,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오봉근,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한국문화사영인본)
 李炳錫, 『壬辰戰亂史』上卷,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장학근,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창미사, 1988
 제정명,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서』, 해사 해양연구소, 2018
 조원래, 『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1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임진왜란 흥양해전사 연구』, 고흥군, 2016

논문

- 김강식, 「임진왜란기 襄武公 金太虛의 활동과 의미」, 『한국민족문화』67,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5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진」, 『항도부산』 제9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2
 김성래, 「朝鮮後期 慶尙左水營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1
 나동욱,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수군 영·진성」, 『부산성곽』 부산박물관, 2016
 박정주, 「18세기 경상좌수영의 水操 및 전함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18
 이만웅, 「임진왜란 초기 해전 연구 I」, 『海洋研究論叢』(제39집) 해군사관학교 해군 해양연구소, 2007

이재룡, 「조선 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집, 1970

이창우, 「조선후기 경상좌수영 嶺下坊里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 논문, 2015년

李晷俊,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10. 12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4

제장명, 「이순신을 도운 경상우수영 · 충청수영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
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운영」, 부경대학교
석사 논문, 2014년

<Abstract>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Gyeongsang Left Navy during the Imjin War

Je, Jang-myong

The perception that the Joseon Navy played a crucial part in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Imjin War is dominant. The naval forces in three provinces (Gyeongsando, Jeollado, and Chungcheongdo) forbade the Japanese army to advance from the sea, which greatly contributed to leading the war in favor of Joseon. However, the Gyeongsang Left Nav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eastern part of Gyeongsang province with Busan at the center, was not able to function properly as it occupied by the Japanese forces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Gyeongsang Left Navy during the Imjin War. It is verified that the Gyeongsang Left Navy existed and carried out its duty clea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d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Gyeongsang Left Navy in order to review the naval history during the Imjin War.

A total of fourteen naval troops were in operation, including two Gwans (administrative land districts), and twelve Poes (naval forces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Gyeongsang Left Navy right before the Imjin War.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prevent the large-scale Japanese troops from invading Busan in the sea because the naval camps were dispersed widely around Busan. In the early phase of the war, therefore, the battles were mainly fought on the land. The commander of Gyeongsang Left Navy also participated in

land battles, including Siege of Busan in which the general Jeong Bal fought hard, and Siege of Dadaepo in which Yun Heung-sin died in the last ditch for Joseon.

Then, the Gyeongsang Left Navy strengthened its offensive against the Japanese forces which remained in that area by the time the peace negotiation began. At this time, Kim Taeheo, the governor of Ulsan won a victory both in land battles and sea battles. In the meantime, Lee Suil, the commander of Gyeongsang Left Navy seized four enemy ships. During the period of the peace negotiation, the Joseon court sought for the measur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panokseon (board roofed ship) to improve the combat power of the Gyeongsang Left Navy. However, the combat of the Gyeongsang Left Navy was only effective in a guerrilla warfare, and it was not able to overcome its numerical deficit against a large enemy.

This situation was the same even during Jeongyoojaeran, the second invasion. When Jeongyoojaeran broke out in January 1597, Gijang Hyeongam and the governor of Ulsan were not able to keep off the enemy and did nothing but reported the invasion of the enemy. However, during the first Siege of Ulsan, the Gyeongsang Left Navy was able to contribute some extent. Lee Unryong, the commander of Gyeongsang Left Navy, supervised the transportation of the provisions for Ming forces through the East Sea and actually exerted great influence in the battle with a small force. The Joseon court commanded the naval camps in the Gyeongsang Left Navy to move toward Busan. So the troops were intensively disposed in Busan.

In short, the Gyeongsang Left Navy carried out military activities in its own way although it was almost in the state of collapse in the early phase of the Imjin War.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Gyeongsang Left Navy did its utmos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at time even if the contribution was small compared to other regional navy.

Key Words : Joseon Navy, Gyeongsang Left Navy Force, Gyeongsang Left Navy, Jeong Bal, Yun Heung-sin, Lee Suil, Lee Unryong, Kim Taeheo, Siege of Ulsan

